

# 풍경들이 부대껴 질로 덤벼지는 마음자리에 서다

캐논 EOS 5와 캐논 D 60, 엔드라트 윈드캐킷, 블랙야크 고어텍스 등산화, 릴리 모자, 스위스 아미 나이프, 10만 분의 1 축적지도, 취체수첩, 그리고 통산주행거리 10만 킬로미터의 캘로퍼 II.

여행전문작가 유연태 씨(48)의 오래된 길벗들이다. 그는 불혹의 나이에 신문사 여행전문 기자직을 접었다. 그러고는 철따라 제가 찾아들 곳 잘도 아는 휘파람새처럼 전국 곳곳을 옮겨 다녔다. 여행을 전업으로 삼은 지 7년, 여기에다 기자시절의 취재를 위한 여행까지 더한다면 그의 여행경력을 말함에 있어 '헤아릴 수 없음'이란 모호한 비유만큼 정확한 표현은 없다.

여행전문작가인 그는 유독 국내여행만 고집한다. 알아보지 못한 한갓진 길을 걷는 일이 특별한 경험일진데 이곳과 저곳을 딱히 구분할 것은 없다. 더하여,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만이 이곳의 정서를 차분하게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기자시절 해외여행도 끈질기다녔었지요. 그러나 돌이와 글을 쓰고 있으면 뭔가 허전하더라구요. 그곳에서 오래도록 머문 자, 혹은 장기간 배낭여행을 떠난 자가 들려주는 사유라면 모를까, 한 며칠 정신없이 다녀온 뒤 그곳을 답을 라치면 마치 픽션을 쓰는 기분이었습시다."

그는 우리 산하를 계절 따라 한 번씩은 다녀보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봄과 여름의 여수가 다르고, 가을과 겨울의 태백이 다르다. 여행을 진업 삼고 그

가 자신에게 약속한 첫 번째 원칙도 그것이다. 아직 계절 따라 뱀아보지 못한 곳도 여럿이지만, 앞으로 길벗들을 꾸릴 날이 더 많기에 그리 걱정은 않는다.

그가 쓴 여행산문집의 미덕은 친절한 현장 재현과 아름다운 영상미를 제 공하는 데 있다. 읽는 이가 마치 그곳에 서 있는 듯한 느낌, 산세 험한 곳이나 인적 드문 오지를 읽을 때면 그가 내미는 배려의 손길을 얼핏 본 듯도 하다.

'사람의 손매를 타지 않아 동백들은 수십 년의 수령을 맘껏 자랑하며 하늘로 솟았는가 하면 이리저리 뒤틀리며 외로운 섬 생활의 속살들을 객들에게 보여준다'는 지심도 동백, '무량수전 옆 언덕쯤에 서서 인양루 쪽으로 시선을



던지면 장쾌하게 펼쳐지는 소백산의 능선들. 그 많은 봉우리들은 모두가 부석사의 석탑이요 전각의 지붕들처럼 여겨진다'는 부석사에 대한 묘사는 말이 뻔 그의 종아리처럼 이름답고 건강하다.

"여행산문 쓰는 일의 매력이라면 그곳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잊거나 잊지 않는 데 있습니다. 길을 걷다 발에 걸린 작은 돌부리 하나까지도 글로 담는 순간 내 것이 되는 거죠. 곱소만 포구와 이천 산수유마을, 비슬산 참꽃과 남해금산 보리암 등 많은 풍경들이 제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절로 따뜻해 집니다. 많은 것을 품고 있으면, 자연 그 속에서 저들끼리 부대껴 마음이 따뜻해지는 법입니다."

많은 여행작가들이 그러하지만, 그 역시 여행지의 풍경을 직접 담아온다. 작업실 컴퓨터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사진 데이터베이스도 물론 '헤아릴 수 없음'이다. 사진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물음에 "이제 겨우 풀을 갓 춘 듯하다"고 대답하는데, 썰물 진 바닷가의 어선 배머리가 담긴 '충남 홍성 남당리포구의 일몰', 뺨치는 봄의 기운이 연둣빛으로 담긴 '포천 국립수목원의 봄'을 보노라면 그 말이 겸손임을 알게 된다.

"대학교 때 교우회보 기자를 하며 사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 사진의 특징이라면 전체풍경이 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메인 컷을 염두하고 찍다 보니 돌아와 현상을 마치면 전체풍경만 가득합니다. 사진 잘 찍는 동료작가와 동행이라도 하는 날엔 잔소리를 듣더라도 한 가지 테크닉은 배우고 돌아오지요. 하지만 테크닉보다 중요한 건 풍경과 마음의 참여입니다."


그는 요즘 새로운 글쓰기를 모색중이다. 클리만 하면 정보가 쏟아지는 세상에서 여행지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한다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일까, 고민하는 까닭이다. 전환점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글쓰기를 새로이 실험중인데, 앞으로 선보일 여행산문은 내밀한 서정성이 담긴 에세이풍이 주조를 이룰 것이라 귀땀한다. 한편 뿌리깊은나무에서 나온 <한국 의 발견> 시리즈와 들베개에서 나온 <담사여행의 길잡이> 시리즈 같은 국내 전

체를 아우르는 시리즈물 기행서 역시 평생을 두고 해내야 할 작업이라고.

"여행이란 마음의 휴식을 얻는 일입니다. 오래도록 여행을 다닌 이는 그 마음도 자연을 닮아 그만큼 넓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래된 여행 벗들이 많은데 한결같이 배려하는 마음이 남디롭습니다. 그리고 신체에 장애가 있다 해서 여행을 먼 일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지체장애3급'이라는 생의 불편한 꼬리표가 저를 여행작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여행산문이 실썩했던 까닭은, 이것이다. 불편한 다리로 남모르는 곳을 그리 딛고 다녔으니 몸의 기억이 달랐을 테다. 성치 않은 길을 걸어 얻은 정보가 물 속에서 막 꺼낸 차돌처럼 빛나 보였을 테다. 불편한 몸임에도 친절하게 손 내밀던 그의 마음이라니. 기자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 자연을 닮은 자의 넉넉한 마음 역시 엿볼 수 있었다. 4박 5일 일정의 흥도, 후산도, 우이도, 비금도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날이라 여독으로 몸이 피곤할 터인데 그는 질문마다 성의를 갖춰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출판저널> 독자를 위해 11월 여행지로 명소 몇 곳을 세심하게 추천해 주었다. 단풍 고운 순창 강천사, 억새가 일품인 제주, 그리고 정신 한백산이 그곳. 특히 정선 한백산은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야생화군락지로 흔치 않은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11월 여행지로 낙점이란다.

최근 그는 여행작가 양영훈, 허시명과 함께 '3인행'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오로지 여행만을 전업으로 삼은 이들의 모임인데 3인이 공동 저자한 <내 평생 꼭 가볼 52명소>를 올해 안에 선보일 예정이다. '3인행'의 홈페이지www.walkingmap.net 역시 곧 손님 맞을 채비를 갖추고 있다. 여유가 없어 아직 길 떠나지 못한 이들이라면 '3인행'의 발자취를 '클릭' 해 보는 일도 괜찮겠다. 길을 떠나고 싶어 여장을 꾸리는 일에 대해서는 그러나 묻지 말 일이다. 그가 들려주는 말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탓이다.

"여행량旅行量이 인생량人生量입니다." 

취재 박용두 기자 · 사진 박신 기자

